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의 관계분석: 이집트, 파키스탄, 모로코의 사회조사데이터를 근거로

김은영*

〈요약〉

이 연구는 자살테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참여의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사와 종교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힌 경험적 연구가 드물다. 이에 따라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의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즉, 개인의 종교적 헌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종교적 신념가설과 종교적 헌신자체 보다는 종교의식에의 참여로 인한 공동체의식에의 강화 등을 통한 자살테러의 지지를 주장하는 협력적 참여가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동의 3개국,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의식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종교적 신념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 중요성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등의 요인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협력적 참여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에의 참여여부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매개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이 두가지 가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지의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종교적 신념가설 변수들 중, 신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종교적 기도시간의 빈도만이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어서 협력적 참여가설의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가 상관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에서 주장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예배의식의 참여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테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논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종교, 자살테러에 대한지지, 이집트, 파키스탄, 모로코

*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 주저자, 교신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분석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
|--|

I. 서 론

테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급진세력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테러의 집단이나 인종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개인들 사이에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랍의 봄을 겪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과 IS와 같은 급진적이고 강력한 테러세력에 의해서 국가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국가와 그와 인접한 중동국가들은 사회적인 격동을 겪으며, 이들의 테러집단과 테러행위에 대한 생각들도 다양한 혼재가운데 있는 혼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테러집단의 활동을 반대하였던 시민들이 중동에서 위세를 떨치며 이슬람의 종교적 회복의 구호를 외치는 선동에 의해 오히려 이들 테러집단에 대해 추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테러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지속되는 사회혼란, 학살, 그리고 내전의 고난으로 인해 테러집단의 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태도를 가지는 중동의 무슬림들도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의견의 혼란기를 거치는 중동지역은, 어쨌든 여전히 가장 많은 테러사건이 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해 미국의 START CENTER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에서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테러사건 2852건이 발생한 이라크였으며, 2212건과 1443건의 테러사건을 각각 기록한 파

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중동국가로서 이집트가 10위를 차지하면 모두 315건의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4b).

이와 같이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시민들의 테러와 테러집단에 대한 태도 특히 자살테러와 같은 극단적 테러활동에 대한 지지는 이들 시민들의 급진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중동국가의 시민들의 급진화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의 확산은 테러집단의 테러리스트의 모집과 자금모금 그리고 기타 다양한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테러활동에 대한 지지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영, 2014a).

이에 따라 관련학계에서는 자살테러와 관련된 연구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살테러리스트로 모집되는 과정 등에 대한 일화적 연구를 통한 개인적 급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이념적 요인이 일반인들의 자살테러리스트화 하는 급진화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 주제의 연구는 여전히 매우 드물게 수행되어왔다. 특히 자살테러활동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 등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서구사회의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급진화의 연구의 일환으로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나 태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따라서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IS와 같은 주요 테러집단들의 주 근거지가 되어있는 중동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김은영, 2014a).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테러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컨소시엄을 수행하는 START center와 WORLD PUBLIC OPINION가 2008년 함께 세계중동의 주요 3개국인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의식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동국가의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지지에 대한 현황과 자살테러와 같은 급진적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관요인들, 특히, 종교와 관련된 요인들과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분석

1. 자살테러와 종교

자살테러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인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극단의 테러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살테러는 행위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범죄학이론 등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특수한 폭력적, 공격적 행위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급진적이고 과격한 테러활동이 전쟁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더 많은 수의 테러리스트가 모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살테러에 가담하는 테러리스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윤민우, 김은영, 2012; Atran, 2003; Ginges, Hansen, & Norenzayan, 2009; Pape, 2005).

자살테러의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1983년에서 2000년의 13년 간, 총 142건의 자살테러공격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에서 2003년의 단 3년의 기간 동안 총 312건의 자살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Atran, 2003; Pape, 2005).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던 기간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살테러가 발생하여 2006년 한 해만 약 500건의 자살테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Atran, 2006). 그리고 현재의 급진적 테러단체들의 전쟁수준의 활동을 지켜보면 더 많은 수의 자살테러가 발생하여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자살테러의 증가와 원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일견에서는 자살테러가 종교적애타주의의 극단적 표출의 하나라고 가정을 한다(Choi & Bowles, 2007).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자살테러는 자신의 종교에 속한 집단과 집단구성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극단적인 형태의 희생을 감행하여 자신들이 속한 집단 이외의 구성원들과 종교적 집단을 공격하는 극단적 종교 활동을 감행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Atran(2006)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자살테러공격행위들은 종교적인 목표와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어있는 테러집단에 의해서 저질러진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과 관련성들로 인해서 자살테러의 공격적 행위들과 폭력적 테러집단에 의한 폭력, 그리고 종교의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과학적 논의가 있어왔다(Dawkins, 2003; Ginges, et al., 2009; Harris, 20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인 목표를 테러집단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로 표방하는 집단들 중에서 자살테러의 감행이 더 빈번한 이유를 일반적인 커뮤니티보다 종교적인 특성을 표방하는 민족이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자살테러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폭력적 테러집단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수동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세력 즉, 지지기반의 일반시민의 커뮤니티가 존재해야만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테러집단들은 자살테러행위와 같은 자극적인 테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기반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테러행위들을 유지하고 지속한다(윤민우, 2013; 김은영, 2014a; Bloom, 2005; Merari, 1993).

이와 같이 자살폭탄테러가 폭력적 테러집단의 활동과 생존에 공헌을 하는 이유는 바로 특정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자살테러활동에 대한 지지적 태도를 조장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훼손하게 하는 테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종교적인 특성의 테러집단들이 자살폭탄테러를 더욱 쉽게 감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자살테러를 수행한 테러리스트들이나 가담자들을 순교자(martyrom)로서 대우하고, 이들은 순교를 통해 내세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고 내세에서의 종교적 영광과 보상의 약속을 특정한 구술적 구호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자살테러리스트들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Dwkins, 2003; Harris, 2005; Hoffman, 1998).

2. 종교적 신념 가설(religious belief hypothesis)과 선행연구

이처럼 폭력적 테러집단의 생존과 자살폭탄테러의 참가 및 이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종교적 신념 가설(religious belief hypothesis)'라고 한다. 종교적 신념가설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학자들은 선별적으로 선택이 된 종교적 내용의 성서나 교제 그리고 전통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종교에 대한 헌신도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와 관여의 결정의 관계 등을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종교적 믿음과 자살테러의 감행이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적 태도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역시 종교와 개인의 태도

와 폭력적 행위의 가담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혼재적 역할들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윤민우, 김은영, 2011; Ginges, et al., 2009:p.224).

그나마 이와 관련된 소수의 선행연구들로는 Sirseloudi(2012)의 독일 내의 터키 쿠르드 디아스포라와 PKK테러집단의 테러활동을 지원의 관계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수행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Sirseloudi(2012)는 그의 연구에서 이슬람의 종교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욕구가 결합한 결과 PKK의 테러활동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Victoroff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2)는 테러지지의 기반세력인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와 자살폭탄테러의 참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설문조사결과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 분석으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유럽국가에 거주하는 1,627명의 무슬림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 무슬림들의 자살폭탄테러를 정당화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무슬림들의 자살폭탄테러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종교적 헌신도가 아니라 거주 국가에서 경험한 나쁜 차별의 경험이 매우 위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4a).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종교적 신념가설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로서 Ginges, Hausen, 그리고 Norenzayan(2009)의 연구는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와의 관련성을 경험적인 실험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신에 대한 기도의 중요성, 종교에 대한 헌신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적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대로 종교 서비스의 참석여부가 자살테러에 대한 일반인들의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발견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종교 활동을 통한 리추얼과 같은 예배적 행위와 이러한 활동모임에서 나누는 상호간의 의견교환 등이 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결속의 강화가 자살테러의 지지와 순교자적 자살테러에 대한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Ginges와 동료들(2009)의 연구는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적 신념가설에 대한 수정가설을 ‘협력적 참여 가설(coalitional commitment hypothesis)’라고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경험적 연구의 중요성은 종교적 신념가설에 대한 새로운 수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즉, 종교적인 헌신이 자살테러의 가담이나 이에 대한 지지적 태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이라기 보다는 종교적인 헌신

이나 개인의 종교성이 집단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나 정신적 행사를 통해서 테러집단의 집단 간의 응집력이나 테러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는 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Choi & Bowles, 2007; Norenzayan & Shariff, 2008; Sosis & Ruffle, 2003).

Sosis 와 Ruffle (2003)의 연구는 이스라엘인들이 유대교회당의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빈도가 집단에 대한 강력한 애타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집합적인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집단 내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내포하는 바는 자살테러의 감행 자체가 극단적인 형태의 집단 내부의 협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종교의식의 집단내부의 협력과 결속의 강화에 대한 영향력은 자살테러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Ginges, et al., 2009:p.224).

이와 같은 종교적 서비스의 참여의 영향에 대해서 Irons(2001)는 이러한 서비스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모임을 형성하는 군중들 간에 가상의 친족의 개념(a sense of fictive kinship)을 형성하고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형성과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선, 자살테러에 참가한 자들의 인생과 이야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서로 흉내 낼 수 있는 잘 조직된 행위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예배의식이 집단 내부의 결속과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행위(예, 자살테러 등)를 포함하면, 이러한 행위가 집단에 대해서 직관에 반하는 공통적 믿음을 함께 심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집단 내부의 결속과 헌신이 강화되는 것은 다른 집단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하게 되는 의식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Atran & Norenzayan, 2004; Ginges, et al., 2009:p.224; Irons, 2001).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Sosis, Kress, 그리고 Boster의 2007년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집단 내부의 자아감과 결속감을 표시하기 위해 치러지는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마킹 행위들(costly marking behaviors), 예를 들면 집단적 신체의 일부를 절제하는 행위나, 바디 피어싱과 같은 특정 마크를 하는 행위들이 외부 집단들과의 전투나 폭력적 대결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Ginges, et al., 2009:p.22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자살테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참여의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특성을 이론화하는 종교적 신념가설과 협력적 참여가설에 대해서

후속연구들의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속적 연구와 검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종교적 신념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 중요성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등의 요인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협력적 참여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에의 참여 여부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매개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분석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선 종교와 관련된 요인들 이외에도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특정테러집단들에 대한 지지적 태도, 그리고 기타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포함되어 다음의 두 가지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개인이 평가하는 신의 중요성, 종교에 대한 확신이 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의 긴 것은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

가설 2. 개인의 종교적 예배의식에의 참여의 빈도의 증가가 신의 중요성, 종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의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중재하여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Ⅲ. 연구분석방법

1. 데이터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연구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테러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컨소시엄을 수행하는 START center와 WORLD PUBLIC OPINION가 2009년 함께 중동의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의식설문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START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서 테러나 폭력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저항 및 극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과격단체 및 극단적 활동조직들을 형성해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수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융합학문프로젝트들 중 일부로서 수행되었다(김은영, 2014a; 김은영 박선영, 2013).

이 설문데이터는 중동의 3국가의 시민들 중 총 3,747명이 참여하여 이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지지에 대한 현황과 자살테러와 같은 급진적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상관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체 3747명의 설문데이터 중, 분석에서 미응답처리가 된 데이터사례를 제외한 총 3,355명의 자료가 이 연구의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 종속변수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자살테러에 대한 중동시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 무슬림이 적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할 때, 자신을 폭파시켰다는 것에 대해 읽거나 들었을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1= ‘항상 정당화 될 수 있다’, 2= ‘어느 정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3= ‘정당화되기가 경우가 쉽지 않다’, 그리고 4=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의 네 가지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었다. 이 후, 회귀분석의 결과해석의 인과적 용이성을 위해서 1번에서 4번까지의 번호를 4번에서 1번으로 반대의 번호로 조작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변수는 4 = ‘항상 정당화 될 수 있다’, 3= ‘어느 정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3= ‘정당화되기가 경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로 재코딩되었다.

2) 독립변수

신의 중요성. 이 변수는 종교의 신념가설을 검증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당신에게 신(God)은 얼마나 중요합니까?”의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참가자들의 응답을 10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로 (1 = 거의 중요하지 않다 ~ 10 = 매우 중요하다)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종교적 기도시간. 개인의 종교행위의 기도시간의 빈도에 대한 질문인 “얼마나 자주 신에게 기도하십니까?”의 설문문항에 대해 5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 응답(1= 하루에 한번 이상, 2=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3= 최소한 한 달에 한번, 4= 특정한 기념일이

나 행사 때에만, 5= 거의 하지 않는다)에 답변한 내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종교의 중요성. 개인의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에서 종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에 대한 설문참여자들의 4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1=매우 확신한다, 2= 조금 확신한다, 3= 거의 확신이 없다, 4=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에의 응답을 측정하여 변수화 하였다.

종교적 예배의식에의 참여. 종교적 예배의식참여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에서 “종교적 예배의식에 얼마나 자주 참여합니까?”의 질문을 사용해 응답자들이 7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 응답문항(1= 적어도 한주에 한번 이상, 2= 일주일에 한번, 3= 한 달에 한번, 4= 일 년에 한번, 5= 특정한 기념일이나 행사 때에만, 6= 거의 하지 않는다, 7=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에 답변한 내용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3) 혼재변수 및 통제변수

이 변수들은 자살테러의 지지를 타나낼 수 있는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연구들에서 보고된 상관요인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이 통제변수들로 이 연구에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자살테러의 지지를 타나낼 수 있는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절히 포함하여 종교와 자살테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재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와 같은 혼재변수 및 기본적인 통제변수들이 자살테러에 대해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혼재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의 위기와 테러집단의 활동에 대한 지지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국가기관의 공공교육 및 사법정의 및 치안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경찰에 대한 확신**의 변수는 지역경찰에 대해 신뢰를 하는지를 질문하는 “지역의 경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 설문문항에 대한 4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 응답들을(1=매우 확신한다, 2= 조금 확신한다, 3= 거의 확신이 없다, 4=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이어서, **국가교육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변수는 시민들이 자국의 국가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들을 (1=매우 확신한다,

2= 조금 확신한다, 3= 거의 확신이 없다, 4=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변수는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역시 4단계의 라이커트 응답지(1=매우 확신한다, 2= 조금 확신한다, 3= 거의 확신이 없다, 4=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확신이 낮을수록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것을 예측이 된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범죄학 이론과 선행연구 등에서 개인의 범죄나 비행 등의 태도 및 일탈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통제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이론적 근거로는 Hirschi(1969)의 사회애착이론이나 Akers(1998)의 사회학습이론 등의 전통적인 범죄학이론에 근거한다. 이들 중 우선, **가족의 중요성** 변수는 설문참여자들의 가족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의 질문에 대한 다음의 5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 응답(1= 매우 중요하다, 2=중요하다, 3= 어느 정도 중요하다, 4= 거의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친구의 중요성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문참가자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5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에 의해 측정되었다(1= 매우 중요하다, 2=중요하다, 3= 어느 정도 중요하다, 4= 거의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직장의 중요성**은 설문참가자들의 직장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직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에 대한 응답(1= 매우 중요하다, 2=중요하다, 3= 어느 정도 중요하다, 4= 거의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애착변수들은 이론에 근거하여 각 집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설문참여자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알카에다 테러집단에 대한 의견 및 태도와 오사마빈라덴에 대한 의견 및 태도**가 연구분석에 포함되어서 종교와 자살테러의 지지의 관계의 다른 혼재요인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테러집단과 리더에 대한 선호적 태도가 자살테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알카에다에 대한 설문참여자들의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미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참가자들의 응답을 3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로 측정하여 변수화하였다(1=미국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미국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 지지한다, 2=미국에 대한 폭력적 공격은 반대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공감한다, 3=미국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미국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

그 외에 개인의 통제변수로서 **나이**(5단계), **결혼상태**(1=기혼, 0=미혼), **성별**(1=남자, 0=여자), **연간수입**(1=낮은 수입(\$5000미만), 2=중간정도의 수입(\$5000이상에서 \$1999미만), 3=높은 수입(\$2000이상의 수입)), **교육정도**(1=낮은 교육수준, 2=중간정도의 교육수준, 3=높은 교육수준), **무슬림**(예=1, 아니오=0)의 변수들이 연구의 분석 모델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자살테러나 테러집단의 활동 등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포함이 되었지만, 분석결과에서는 자살테러에 대한 중동시민들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나이가 어리고, 남성이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낮은 수입과 교육수준과 직업이 없는 상태의 무슬림인 경우가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분석방법

연구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들의 선택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중동의 3개 국가의 설문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가 국가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수행하여 카이제곱결과를 제시한 기술적 분석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동 3국의 자살테러에 대한 의견을 막대그래프로 도표화하여 이해하기 쉬운 도표로 제시하였다 <도표 1>. 이는 개별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 등에 따른 지지도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어서 연구에서 선별되어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3>.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검증 가설들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기법(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이 적용되었다 <표 4>.

IV. 결 과

1. 기술적 분석결과

연구에 사용된 이집트, 모로코, 그리고 파키스탄의 중동 3개국의 시민들의 설문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기위한 기술적 분석결과의 내용이 <표 1>에 보고되었다. 먼저, 중동 3개국의 전체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일반적 의견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국가별로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각 국가별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지 않고 서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arson 카이제곱 값 = 730.25 ***)<표 2>.

보다 구체적으로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테러공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지지의 태도를 보인 국가의 시민은 바로 이집트(n=612)국가의 시민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모로코(n=157)와 파키스탄(n=60)의 순서였다. 그리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국가의 시민들은 바로 파키스탄국가의 시민들이었다(n=743). 이러한 설문조사의 분포는 <도표 1>의 막대그래프의 분석결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근래에 들어 이집트에서 더 많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던 2009년 시기에는 파키스탄에서 이집트나 모로코에 비해서 더 많은 테러공격과 자살테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 시민들에게서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지지적 태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이와 같은 테러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설문에 참여한 중동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의 나이대의 시민들이며, 설문 참여자들 중 남성이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23세에서 29세의 나이카테고리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들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중간정도의 교육수준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연평균소득은 평균적으로 중간정도의 소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연간 \$5000이상에서 \$1999이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결혼의 여부는 전체 설문참여자들 중 결혼을 한 상태인 경우가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의 유형에서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밝힌 설문참여자들은 모두 97%에

달해서 단 3%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설문참가자들이 무슬림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자살테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주요 독립변수들 중, 자신의 인생에서 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또한 기도시간 역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 이상기도한다라는 응답을 하였고,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설문참가자들이 종교에 대한 확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참여자들은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 빈도는 평균적으로 특정한 기념일이나 행사 때만 한다고 응답하여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빈도는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중요성보다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 외의 주요 혼재변수 및 상관변수를 나타내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설문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이들 가까운 집단들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자국의 공교육시스템과 지역의 경찰에 대한 확신의 질문에 대한 설문참여자들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조금 확신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반적으로 매우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국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알카에다 테러집단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중간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미국 등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공격활동에는 반대하지만 알카에다가 보이고 있는 이념적 태도 등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한다는 태도이다.

〈표 1〉 설문에 참여한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의 중동 3개국의 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n=3,355)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	2.60	1.30	1	4
독립변수				
나이	2.85	1.36	1	5
성별(남자 =1, 여자 =0)	(남성 = 69%)		0	1
교육수준	2.02	.78	1	3
수입	1.95	.75	1	3
결혼여부(그렇다 =1)	(기혼자=58%)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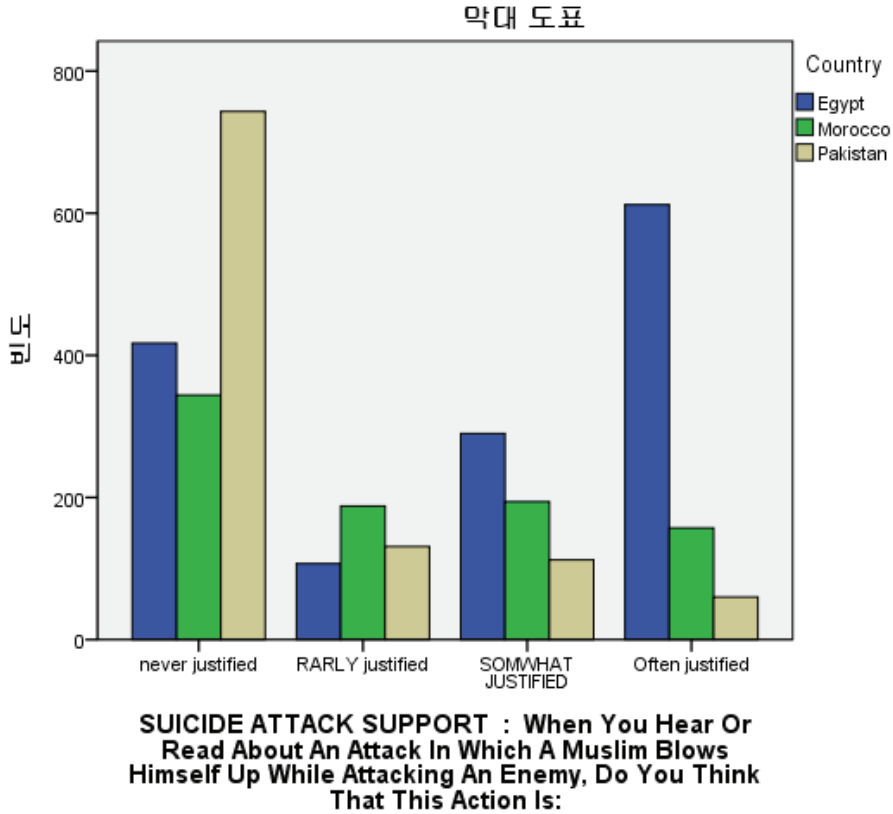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무슬림(그렇다 =1) (무슬림 =97%)	(무슬림 =97%)		0	1
신의 중요성 (1=전혀 중요하지 않음~10=매우중요)	9.98	.21	1	10
종교의 중요성 (1= 매우중요~4=전혀 중요하지 않음)	1.01	.13	1	4
종교적 기도시간 (1=하루에 한번이상~5=거의 하지 않음)	1.22	.69	1	5
종교적 예배의식 참여빈도 (1=한주에 한번이상~7=거의 하지 않음)	5.50	2.04	1	7
가족에 대한 애착 (1= 매우중요~5=전혀 중요하지 않음)	1.02	.15	1	5
친구에 대한 애착 (1= 매우중요~5=전혀 중요하지 않음)	1.48	.79	1	5
직장에 대한 애착 (1= 매우중요~5=전혀 중요하지 않음)	1.17	.61	1	5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확신 (1= 매우확신~4=전혀 확신하지 않음)	2.24	1.05	1	4
경찰에 대한 확신 (1= 매우확신~4=전혀 확신하지 않음)	2.10	1.03	1	4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 (1= 매우확신~4=전혀 확신하지 않음)	1.17	.96	1	4
알카에다에 대한 태도 (1=지지한다~3=반대한다)	2.11	.82	1	3

<표 2>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 3국의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의 집단들 간의 차이분석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 = 730.25 ***, n=3,355)

빈도교차분석

		국가			전체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	
자살테러 공격에 대한 견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417	344	743	1504
	정당화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107	188	131	426
	어느 정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290	194	112	596
	항상 정당화 될 수 있다.	612	157	60	829
	전체	1426	883	1046	3355

*** p <.001



[도표 1]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의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의견에 대한 분포

2. 변수 간 상관분석결과

<표 3>은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모든 독립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분석 및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무슬림, 신의 중요성, 종교적 기도시간, 종교적 예배의식에의 참여빈도, 가족에 대한 애착, 직장에 대한 애착, 공교육 시스템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알카에다에 대한 태도가 설문조사에 참가한 3국의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관계계수가 모두 0.5이하인 것으로

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회귀분석과 함께 수행된 다중공선성분석결과 IVF 지수가 모두 2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오류의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3.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표 4>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목적인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신념가설과 협력적 참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는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두 5단계의 분석모델로 구성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델 1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만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성별(Beta =-.05*), 교육수준(Beta =.13***), 결혼여부(Beta =-.12***), 무슬림(Beta =.10***))이라는 특성이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인 것과 미혼인 상태가 자살테러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무슬림인 것이 자살테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증가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 중, 교육수준이 다른 요인들 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모델 2에서는 모델 2의 변수에 종교적 신념가설의 변수들을 반영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신의 중요성, 종교의 중요성, 그리고 종교적 기도를 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 중 성별만 제외하고 교육수준, 결혼여부, 그리고 무슬림의 변수의 영향력은 큰 변화 없이 약간의 회귀계수의 감소를 제외하고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적 기도시간(Beta =-.0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인 기도시간을 더 자주하는 것이 자살테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표현으로 종교적으로 더 빈번하게 기도하지 않는 무슬림이나 중동시민들의 경우, 이들이 자살테러를 지지하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낼 위험이 컸다.

세 번째의 분석모델 3은 인구통계적 변수들과 협력적 참여가설의 주요변수가 되는 종교적 예배의식에의 참여빈도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 모델의 분석결과, 교육수준, 결혼여부, 무슬림의 세 변수의 영향력과 유의성은 거의 모델 1의 수준으로 유지되었

고,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변수는(Beta =.16***) 종교적 예배의식에 덜 참여할수록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변수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의 모델 4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종교적 신념가설변수, 협력적 참가설의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모델 4의 검증의 목적은 이와 같은 단계적 변수의 포함을 통해서 협력적 참가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교적 헌신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의 변수들에 의해 중재되거나 또는 조절이 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선 모델 1에서 유의미하였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큰 회귀계수의 변화 없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교적 기도시간의 변수가 모델 2에서 나타난 회귀계수의 크기보다 조금 증가하고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변수가 모델 3의 회귀계수보다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수가 한 변수에 의해서 중재되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조절하는 관계를 나타내어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회귀계수의 변화가 미미하여 결론적인 해석을 내기보다는 각각의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5는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이 모델 5에는 모델 4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이외에도 가족, 친구, 직장에 대한 애착과, 자국의 공교육시스템, 지역경찰, 그리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서 자살테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혼재변수들을 포함한 뒤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Beta =.07*)과 무슬림(Beta =.08**)외의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모두 사라져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었을 때,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더 이상 예측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영향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이어서 종교와 관련된 변수들 중 종교적 기도시간의 빈도(Beta =-.09**)와 종교적 예배의식에의 참여(Beta =.15***)의 변수들이 자살테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 변수들의 회귀계수 역시 조금 감소하였다.

그리고 혼재변수들로 포함된 변수들 중에는 가족애착(Beta =-.06*),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Beta =-.09**), 그리고 알카에다에 대한 지지(Beta =-.15***)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에 대한 애착과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알카에다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테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여 자살테러를 지지하는 긍정적 태도를 높이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 중 알카에다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영향력은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모든 독립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이변량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0.02	1																	
3	.04**	.01	1																
4	.16**	-.14**	.09**	1															
5	.01	.02	.00	.14**	1														
6	-.14	.42**	-.05**	-.21**	-.02	1													
7	.05**	-.00	-.03	-.10	-.04**	-.02	1												
8	.06**	.03	.09	.07**	.00	-.02	.04**	1											
9	-.04**	-.03	-.10	-.02	.03*	-.00	-.03*	-.22**	1										
10	-.09**	-.11**	-.07**	-.11**	.04*	-.00	-.14**	-.22**	.21**	1									
11	.06**	.06**	-.02	-.01	.03	.05**	-.02	-.01	-.04**	.13**	1								
13	-.01	-.03	-.08**	-.06**	.02	.01	.00	-.03*	.31**	.17**	-.02	1							
14	-.05**	.05**	-.10**	-.06**	-.02	.02	.02	-.07**	.14**	.08**	-.10**	.18**	1						
15	-.00	-.02	-.16**	-.06**	.00	.02	.01	-.08**	.27**	.11**	.02	.23**	.16**	1					
16	.05**	-.02	.01	.22	.07**	-.06**	-.00	-.05**	.06**	.02	-.08**	.06**	.12**	.06**	1				
17	-.07**	-.11**	-.02	.08**	.08**	-.01	.03	-.07**	.06**	.08**	-.05	.05**	.15**	.10**	.44**	1			
18	-.13**	-.11**	-.09**	.02	.10**	-.02	.03	-.07**	.08**	.09**	-.18	.05**	.16**	.10**	.37**	.41**	1		
18	-.18**	.05**	.04**	-.01	-.03	.05*	-.07**	.00	.05**	-.00	-.03	.00	.00	-.00	-.01	-.05*	-.02	1	

* P < 0.05

〈표 4〉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 시민들의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의 관계와 상관요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n=3,355)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	S.E	b	S.E	b	S.E	b	S.E	b	S.E
나이	.02	.03	.00	.02	.00	.02	.00	.02	-.01	.03
성별	-.15	.08	-.15	.06	-.05	.06	-.04	.06	-.04	.08
교육수준	.21	.04	.13***	.04	.11***	.03	.13***	.17	.03	.11***
수입	-.02	.04	-.01	.04	-.01	.04	-.00	.04	-.00	.04
결혼여부	-.31	.07	-.12***	.07	-.12***	.07	-.10***	.07	-.10***	.08
무슬림	.69	.15	.10***	.18	.08***	.15	.10***	.58	.18	.07**
신의 중요성			-.01	.15	-.00		-.06	.14	-.01	.17
종교의 중요성			-.12	.18	-.01		-.06	.18	-.01	.28
종교적 기도시간			-.15	.04	-.08**		.10	.01	.16***	.11
종교예배의식의 참여									-.10***	.05
가족예작									-.17	.05
친구예작									.09	.01
작장예작									-.48	.22
공교육에 대한 확신									.04	.04
경찰에 대한 확신									.09	.05
사법시스템 확신									.06	.03
안카에다에 대한 확신									.02	.04
									-.12	.04
									-.24	.04
R-square	.05		.05		.07		.08		.08	
F값	13.96***		10.48***		19.34***		15.18***		8.04***	

* P < 0.05, ** P < 0.01, *** P < 0.001

V. 결론 및 논의

대부분이 모슬림인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이들의 종교에 대한 헌신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여겨져 왔다. 이에 관해서 관련연구와 학자들은 종교의 헌신정도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소위 종교적 신념가설이라고 명명하여왔고, 이러한 주장은 일견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종교적 신념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발견되지만은 않았다. 이와 같은 발견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무슬림들의 종교적 헌신 정도 보다는 이들이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종교적 의식에의 참여행위가 더욱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협력적 신념가설로 불려졌다. 이처럼 자살테러에 대한 참여의사와 지지적 태도와 종교적 특성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여 후속연구에서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이고 상충적인 가설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살테러와 종교의 관계와 영향이 미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자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가설과 협력적 참여가설을 각각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다수의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종교적 신념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 중요성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등의 요인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가설 1), 순차적으로 협력적 참여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에의 참여여부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매개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가설 2).

연구의 분석결과 종교적 신념가설을 검증하는 가설 1은 단지 부분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증거를 발견하는 데 그쳤다. 즉, 세 가지의 종교적 신념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변수들 중, 종교적 기도시간의 빈도만이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는 완충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으로 더 빈번하게 기도하지 않는 무슬림이나 중동시민들의 경우, 이들이 자살테러를 지지하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낼 위험이 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가설에서 제시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신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요성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가설에 대한 지지를 뒷받침 할 수 없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협력적 참가설을 반영하는 가설 2의 경우 종교적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행위가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종교적 예배의식에 덜 참석할수록 자살테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력적 참가설을 반영하는 가설 2를 역시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력적 참가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나 중동국가의 시민들 개인의 종교의 헌신도 보다는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대화나 의견의 교환을 통해 개인의 종교성이 집단적이고 종교적인 정신적 예배행위를 통해 집단 간의 응집력이나 테러집단과 연결된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는 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또 다른 의미로, 종교적 예배의식에의 참여는 종교성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여겨지던지 아니면 이미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 외에도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나 중동국가의 시민들의 집단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다른 기제나 과정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매스컴, 인터넷 등의 다른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인 예배행위에 대한 참여가 없이도 집단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대체적 수단이 작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빈번한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무슬림사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테러집단의 활동에 대한 뉴스 등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테러집단과 정신적인 연대를 형성해 가는 또 다른 정신적 의식 활동이 개인적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설을 검증하기에 더 유용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후속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분석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선 종교와 관련된 요인들 이외에도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특정테러집단들에 대한 지지적 태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등의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포함하여 종교와 자살테러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들과 이론들에서 제시한대로 가족에 대한 애착과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확신은 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완충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동사회에서 가족에서의 안정과 애착의 유지,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자살테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이들의 자살테러나 자살테러를 감행하는 테러집단에

의 참여와 지원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알카에다 테러집단에 대한 지지적 태도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킨다는 예상했던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의 위험성과 이들이 표방하는 이상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목표가 허구이거나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해 더 큰 위협과 피의 댓가, 그리고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을 전제로 행해지는 불법적 무력행위이며 전쟁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알카에다에 대한 지지의 태도는 다른 여타 변수들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높다. 따라서 테러집단의 위험성에 대한 중동시민들에 대한 관점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 정보활동 등이 매우 시급할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은영(2014a).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39호: 131 - 160.
- ___ (2014b).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탈-알카이다 중심화와 보코하람, IS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41호: 185-212.
- 김은영·박선영 (2013). 국제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 35호:7-36.
- 윤민우 (2011). 국제조직범죄의 전통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범죄학, 제 5호. 107-141.
- ___(2013).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317-433.
- 윤민우·김은영(2011). 아프가니스탄 지역 파슈툰 부족의 안보/치안시스템: 국가권력과 탈레반 테러세력사이의 안보/치안서비스경쟁. 한국경찰연구, 제 10권, 제 3호: 85 -119.
- 윤민우·김은영(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1호: 157-183.
- 윤민우·김은영(2014).학대경험과 사회적지지가 비행청소년들의 자살관념화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연구: Colvin과 Cullen의 강압과 사회지지이론의 적용, 한국범죄학, 제 8호: 243-280.
- 윤민우·강소영(2010). 해상 범죄(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과 논의 -미국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범죄학. 제 4호: 57-77.

2. 국외문헌

- Atran, S., & Norenzayan, A. (2004). Religion's evolutionary landscape: Counterintuition, commitment, compassion, communion [Target article plus commentari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7: 713-770.
- Bloom, M. (2005). *Dying to kill: The allure of suicide terro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oi, J., & Bowles, S. (2007). The coevolution of parochial altruism and war. *Science*, 318: 636-640.
- Dawkins, R. (2003). *A devil's chaplain: Reflections on hope, lies, science, and love*. Boston: Houghton Mifflin.

- Ginges, J., Hansen, I., & Norenzayan, A. (2009). Religion and support for suicide attacks, *Psychological Science*, 20:224 -230.
- Harris, S. (2005).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 New York: W.W. Norton.
- Hoffman, B. (1998). *Inside terror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rons, W. (2001). Religion as a hard-to-fake sign of commitment. In R. Nesse (Ed.), *Evolution and the capacity for commitment* (pp. 292-30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erari, A. (1993). Terrorism as a strategy in insurgency.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5: 213-251.
- Norenzayan, A., & Shariff, A.F. (2008). The origin and evolution of religious prosociality. *Science*, 322: 58-62.
- Pape, R.A. (2005). *Dying to win: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New York: Random House.
- Sosis, R., Kress, H., & Boster, J. (2007). Scars for war: Evaluating alternative signaling explanations for cross-cultural variance in ritual cost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 234-247.
- Sosis, R., & Ruffle, B.J. (2003). Religious ritual and cooperation: Testing for a relationship on religious and secular Kibbutzim. *Current Anthropology*, 44: 714-722.
- Sirseldoudi, M. (2012). The meaning of religion and identity for the violent radicalization of the Turkish diaspora in Germany.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4:807-824.
- Victoroff, J., Adelman, J.R. & Matthews, M. (2012).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suicide bombing in the muslim diaspora. *Political Psychology*, 33: 791-809.

【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upports for suicide attacks among citizens in Egypt, Pakistan, and Morocco

Kim, Eun-Young*

There has been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 on the nexus between religion and citizen's supports for suicide attacks and terrorist groups conducting such act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there were two potent hypotheses attempting to explain the process and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religious belief hypothesis and coalitional commitment hypothesis.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se hypotheses have been carried out across different cultural, religious, and political contexts. Until today, however, there are still lack of concrete evidence, which is generated from empirical studies, supportive evidence for any of these hypotheses. Therefo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religion and popular support for suicide attacks by using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ree middle east countries, Egypt, Morocco, and Pakistan. In analysis, a step-wised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with a set of variety of variables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the association. This study found that variables reflecting religious belief hypothesis, such as prayer to God, religious devotion were unrelated to support for suicide attacks. Yet, prayer time predicted reduced supports for suicide attacks. Further,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thought to enhance coalitional commitment, predicted support for suicide attacks. Yet, it showed negative association with support for suicide attac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ular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and regular prayer have combined effects reducing on the willing to support for suicide martyrdom. However, this study findings affirmatively support for neither religious belief hypothesis nor coalitional commitment hypothesis. Instead, it suggests the needs for further research examination on the relationship as well as corrections of these hypotheses.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findings for preventing suicide attacks are discussed.

Key words : religion, support for suicide attacks, Egypt, Morocco, Pakista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 Crime Investig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